

마음과 열매
Heart and Fruit
(마가복음 Mark 11:1-11)

종려주일입니다. 2천 여년 전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 하셨습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묵상하는 아주 친숙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복음서의 평행본문들도 다양한 번역으로 천천히 묵상했습니다. 각 복음서마다 내용도 조금 다르고, 강조점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다른 복음서의 내용들을 함께 살펴 보면서, ‘주님께서 종려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 근처에 있는 마을에 오셔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Today is Palm Sunday. This is the day Jesus entered Jerusalem two thousand years ago. Today’s scripture is very familiar to many of us as we read it every Palm Sunday. Preparing for this sermon, I meditated on other gospels where this event is recorded, using different versions of the Bible. Each gospel describes this event a bit differently with a different emphasis. Based on the gospel of Mark, along with other gospel records, let’s think about ‘**what is the message the Lord is giving us on this Palm Sunday?**’ When Jesus came to a town near the Mount of Olives, he said to two of his disciples.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새끼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너라. (마가복음 11:2; 누가복음 19:30)

“Go to the village ahead of you, and just as you enter it, you will find a colt tied there, which no one has ever ridden. Untie it and bring it here.” (Mark 11: 2; Luke 19:30)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은 어떤 나귀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서에는 주님께서 쓰실 나귀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그저 나귀 한 마리와 곁에 있는 새끼 나귀라고 기록돼 있고, 제자들은 두 마리 모두 주님께 가져 옵니다. (마태복음 11:2,7). 주님을 모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온 나귀는 과연 어떤 나귀입니까?

The gospels of Mark and Luke describe the colt in great detail. But other gospels does not include the details about the colt which Jesus was about to use. The gospel of Matthew simply records a donkey with her colt and writes that the disciples took them. (Matthew 21: 2, 7) What kind of colt was it that carried Jesus into Jerusalem?

- 1. 아직 한 번도 다른 사람이 타 본 적이 없는 나귀입니다.**
It was a colt that no one has ever ridden.

아직까지 한 번도 길들여져 본 적이 없는 나귀란 말이지요. 길들여지지 않은 동물을 다루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 길들여진 동물을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힘듭니다. 이미 잘못된 습관과 고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모시고 갈 나귀를 찾으셨던 것 처럼,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서도 주님께서 친히 쓰실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나귀입니까? 주님께 길들여지기 원하는 나귀입니까? 아니면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기로 아예 걱정할, 잘못 길들여진 나귀입니까? 주님은 수많은 나귀 중에서 다른 사람이 타 본 적이 없는 나귀를 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께만 길들여지기 원하십니까?

This means that the colt has never been tamed by people. It is not easy to deal with untamed animals. However, it is much harder to deal with animals that have been tamed in a wrong manner because they are stubborn and have many bad habits. Just as Jesus needed a colt that he could ride, today he is looking for servants whom he can freely command in this place of worship. What kind of colts are we? Are we the ones who desire to be tamed by the Lord? Or are we the ones that are led by our own way and our own will? Jesus chose the one that no one has ever ridden. Dear beloved, do you truly want to be tamed and used only by Jesus?

2. **어른 나귀가 아니라 새끼 나귀입니다.** **It was not a donkey but a colt.**

살도 마음도 부드럽습니다. 아직 굳은 각질이 생기지 않았습니니다. 가끔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지고,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히려 새끼 나귀가 어른 나귀로 바뀌는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더이상 벽찬 감동도 없고, 눈물도 바싹 메말라 버렸습니다. 어른 나귀는 자기 근육과 힘만 자랑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형교회가 되면, 각종 프로그램과 예산을 자랑합니다. 새끼 나귀의 순수함을 잃어 버립니다. 와싱턴한인교회는 언제나 주님 앞에서 온순한 새끼 나귀로 남아있길 원합니다.

This means that both its flesh and heart are soft. They are not calloused. With increased years in the faith and deeper experiences of His grace, we tend to become like a donkey rather than staying as a colt. It is a pity to see the excitement and tear of joy for Christ get dry over the years. Old donkeys only boast their muscles and strength. Church is the same. When a church community grows big, it boasts of its various programs and the amount of its budget. It loses the purity of a colt. I pray that KUMCGW will always stay as a meek colt in the sight of Jesus.

3. **아직 세속에 길들여지지 않은 새끼 나귀가 조용히 끈에 매여,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A colt yet to be tamed by the world is tied, quietly waiting for the Lord's call

영적교만이 충만해지면, 곧장 종의 모습을 잃어 버립니다. 목에 걸려있는 누구 누구의 소유, 목줄/이름표가 거추장스러워 잘라 버리고, 이리저리 날뛰기 시작합니다. 주인이 절대로 쓸 수 없는 가출한 나귀입니다. 나귀의 존재이유가 뭘니까? 주인이 편안하게 걸터 앉아서, 주인이 가자는 데로 묵묵히 움직이는 것이지요. 셋길 안다고 잘난 척하고, 피곤하다고 주인을 내던져 버리는 나귀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나귀, 형편없는 고기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길들여지지 않은 묵묵히 매여 있는 새끼 나귀를 부르십니다.

When filled with spiritual pride, people easily lose the attributes of a servant. The sense of belonging, boundaries, and restrictions become a burden to them and they become wayward.

They are like donkeys that are useless to their master, they have gone astray. What is the purpose of a donkey? It is to take its master comfortably to the place where the master wants to go. If the donkey goes in the way it knows or if it dumps its master when it feels tired, then that donkey is useless; it is as good as a mere lump of meat. Now Jesus is calling a colt that is tied but yet untamed.

“새끼 나귀를 풀어서 이리로 끌고 오너라.”
“Untie it and bring it here.”

새끼 나귀를 데려오라는 명령입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으로 들립니다. 주님을 위해 준비된, 하나님께서 미리 남겨 놓으신, 주의 일꾼들을 부르십니다. 주님을 위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누가 주인인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더이상 세상에 매여 있기를 거부 하면서, 지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십시오. 세상에 매여 있으면, 주님이 원하실 때,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This is a call to bring the colt. Strange as it may sound, I think this is Jesus' calling for you and me. Jesus is calling those who are set apart and prepared for him and his work. Do you want to be used by the Lord? You should see clearly who your master is. Putting the world behind us, let us respond to his calling. When we are bound by the world, we can't come to the Lord when he wants us and calls us.

주님은 새끼 나귀를 데려오는 제자들의 행동이 동네 사람들 눈에, 특별히 나귀 주인에게 수상히 여겨질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사람들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라고 친절히 답도 미리 주셨지요. Jesus knew very well that the disciples' act of untying and carrying the colt would look suspicious to the people in the village, especially to the colt's owner. So he kindly gave an answer to the disciples for a question people might ask.

“주께서 쓰시겠다.”
“The Lord needs it.”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신/구약을 관통하는 예언의 성취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This is a short answer, but it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the fulfillment of the prophecy found throughout the Old/New Testament.

시온의 딸에게 말하여라. 보아라. 네 임금께서 내게로 오신다.
그는 온유하시어, 나귀를 타셨으니, 어린 나귀, 곧 멩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
(마태복음 21:5, 스가랴서 9:9 인용)

Say to Daughter Zion, 'See, your king comes to you, gentle and riding on a donkey, and on a colt, the foal of a donkey. (Matthew 21:5, Zechariah 9:9)

주님은 우연히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계획 가운데 하늘보좌 영광을 버리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우연히, 별 뜻 없이 어떤 한 나귀를 고르신 게 아니지요. 구약의 예언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제자들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뒤에,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승천하신 뒤에야 비로써 구약의 말씀이 예수를 두고 기록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요한복음 12:16)

Jesus did not come to the world by accident. He came to save us according to God's plan, leaving the glorious heavenly throne. As such, he did not choose a colt randomly; rather, he fulfilled the Old Testament prophecy by doing so. His disciples did not understand Jesus who entered Jerusalem riding on a colt. Only after Jesus was glorified-- carried the cross, resurrected and ascended-- did they realize 'that these things had been written about him and that these things had been done to him.' (John 12: 16)

이제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 오십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열광합니다. 군중심리가 발동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누군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조차 '주님 맞이'에 정신이 없습니다.

Now, the Lord entered into Jerusalem riding on a colt. A large number of people enthusiastically cheered him on. A herd mentality started to arouse. Even those who did not know Jesus well were wildly welcoming the Lord.

호산나! 남들이 다 하는 대로 외칩니다. (표준새번역)

"Hosanna!," they shouted as others (NKSB version)

소리를 지릅니다. (개역한글)

They shouted (KRV version)

환성을 올립니다. (공동번역)

They cheered him on. (CTB version)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에게 복이 있도다!

이스라엘의 왕에게 복이 있도다."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King of Israel."

대부분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공동번역은 백성들의 마음속을 꿰뚫어봅니다.

In contrast to most other Bible translations, Common Translation Bible penetrates people's minds.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마가복음 11:10, 공동번역)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가 온다. 만세! 높은 하늘에서도 호산나!

"Hosanna!" "Blessed is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Blessed is the coming kingdom of our father David!” “Hosanna in the highest heaven!” (Mark 11:9-10 NIV)

‘호산나’의 원어적 의미는 ‘주께 간구하오니 이제 구원해 주십시오’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께 열광했던 군중들은 자기들이 하는 말이 어떤 의미인 줄도 모르면서, 그저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쳐대고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인지,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줄 알았다면, 호산나 울림이 사라져 버리기도 전에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았을 리가 없지요.

The Hebrew meaning of ‘Hosanna’ is ‘save us as we pray to the Lord.’ The people who so wildly welcomed Jesus as they waved the palm branches and shouted, “Hosanna”, did it without really understanding what they were saying. If they knew who the Lord was and how He would save them, they would not have crucified Him on a cross so soon after they had shouted Hosanna.

또 당시에는 ‘호산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는 인사말로도 쓰였습니다. 무리 중에는 아무 생각없이 그저 인사말로 호산나를 외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시는 사건을 ‘이스라엘 독립만세!’ 영적인 구원의 의미를 담은 호산나를 정치적으로만 해석합니다.

Also at that time, ‘Hosanna!’ was used as a common greeting meaning, ‘praise God!’ Some among the people might have shouted thoughtlessly ‘Hosanna!’ merely as a greeting. Also, some people might have interpreted the event of the Lord entering Jerusalem as a political salvation and thought it meant ‘independence for Israel!’, rather than with the meaning of spiritual salvation.

오히려 주님의 영향력을 깨닫고, 주님을 경계했던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소리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19:38) 가뜩이나 주님의 사역에 대해 심기가 불편한 바리새인들이 억지를 부립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On the contrary, the Pharisees realized the Lord’s influential power and were cautious against Jesus. The disciples shouted loudly, “Blessed is the king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Peace in heaven and glory in the highest!” (Luke 19:38) and praised God. As already uncomfortable with the Lord’s work, the Pharisees made an unreasonable demand. “Teacher, rebuke your disciples!” (Luke 19:39) Jesus replied.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지를 것이다. (누가복음 19:40)

“I tell you,” he replied, “if they keep quiet, the stones will cry out.” (Luke 19:40)

주님 사역의 아이러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실 때는 비천한 말구유에, 몇 사람 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실 때에는 온 예루살렘이 모든 이스라엘이 떠들썩하게 집중조명을 받으십니다. 오죽했으면,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환영인파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영향력을 걱정 하겠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Here is the irony of the Lord’s ministry. He came to a humble manger with only few people knowing of His coming. However, He received the loud spotlight of all Israelites in Jerusalem when He bears His cross as a sinner. The Pharisees must have been very worried about the

Lord's influential power entering Jerusalem with a large number of welcoming people. The popularity of Jesus who raised Lazarus from the dead was soaring to the sky.

“이제 다 틀렸소. 보시오. 온 세상이 그 [예수]를 따라갔소.” (요한복음 12:19)

바리새인들도 이제는 끝난 게임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광과 높임을 받으시려고 예루살렘에 오신 게 아닙니다.

“See, this is getting us nowhere. Look how the whole world has gone after him!” (John 12:19)

The Pharisees thought the game was over. But, the Lord did not enter Jerusalem for glory and respect.

‘왜 주님께서 새끼 나귀 등에 실려서 예루살렘에 오셨습니까?’

‘Why did the Lord enter Jerusalem riding on a colt?’

이 질문이 종려주일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루살렘에 그리고 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십니까? 간단하고도 정확한 대답은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길에 레드 카펫이 깔립니다. 제자들과 구경꾼들은 자신들의 겂옷을 길 위에 깔아 놓습니다. 앞사귀가 무성한 가지들을 길에 펼쳐 놓습니다. 여러분, 이 ‘겂옷’과 ‘나뭇가지’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This question should be the core of the Palm Sunday. Why did the Lord come into Jerusalem? And why does the Lord come to us today at our worship service? The simple and accurate answer is “Hosanna! He came to save us.” A red carpet was spread on the road to Jerusalem. The disciples and the spectators spread their cloaks and the branches on the road. Branches in full leaf were spread on the road. Please pay attention to the ‘cloaks’ and the ‘branches.’

세례와 입교 교육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들에게 꼭 부탁드리는데 있습니다. 자녀들을 축복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적어 보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이런 고백을 하십니다. “목사님, 자녀기도문을 적으면서 ‘저희 부부가 참 걸 다르고, 속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과 가정에서 모습이 많이 다릅니다.”

참으로 귀한 고백입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 신앙과 삶의 현 주소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디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결단해야 됩니다. 저는 부모님들과 나눔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참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어린이/청소년 교회에 거룩한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는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I always ask the parents, during the baptism and confirmation classes, to write a prayer of blessing for their children. One young couple confessed, “Pastor, we realized, while we were writing the prayer for our child, that we are living a double life. Our lives at home look different from ourselves at church.” This is indeed a precious confession. We need to know clearly **where we are** with our faith and our lives. By doing so, we can determine **where to** and what direction we need to move forward. Through the sharing with parents, I realized that ‘God really loves our children a lot and a holy change in our children and youth ministries is slowly happening.’

겂옷을 길에 깔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비록 겂옷은 벗었어도, 오히려 속마음은 꼭꼭 감추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각자 다른 공공이 속 때문에 호산나를 외쳐 댁니다. 존경과 사랑으로 겂옷을 벗어도, 아직

마음 속은 첩첩산중 오리무중입니다. 자기도 도대체 몇 겹의 겹옷을 걸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주님께 속마음을 꺼내 드리지 못합니다.

How were the Israelites who spread their cloaks on the road? Although they took off their cloaks, they hid their inside hearts very well. The crowds shouted “Hosanna!” with different individual agendas. Although they took off their cloaks as a show of respect and love, their inside hearts were still in the foggy dark, covered in many layers. They did not even know how many layers of cloaks they were wearing. They were never able to bring out their inside hearts to the Lord.

주님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일으킨 스캔들이 바로 ‘성전청소’입니다.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의 장사판을 모조리 다 뒤엎어 버리십니다. 당시 종교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박기 위해 혈안이 되지요. 주님은 의미없는 호산나 외침을 들으시며, 이미 성전청소를 결심 하셨던 겁니다.

The Lord’s first scandal after entering Jerusalem was the ‘temple cleaning.’ He overturned the tables of those who were selling merchandises inside the temple. This was a serious challenge to the religious power at that time. Due to this event, the chief priests became obsessed with crucifying the Lord on a cross. The Lord must have decided to clean out the temple when he heard the meaningless shouting of “Hosanna.”

구원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회개, 마음의 청소입니다. 마음 속에 욕심, 형제/자매를 향한 미움, 시기와 경쟁, 걱정과 불안, 더러운 세속의 오물들을 담고 있으면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입술로만 호산나를 외치는 것, 공허하기 짝이 없습니다. 겹옷만 벗고, ‘주님 이제 절 구원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회 칠한 무덤’이라고 꾸짖으십니다.

The first thing we need to do for our salvation is to repent, cleaning of our heart. We cannot be saved with greed, hatred toward brothers and sisters, envy and competitiveness, worry and anxiety, and worldly dirty garbage in our hearts. Shouting “Hosanna!” with only lips is truly hollow like asking “Lord, please save us now’ with only outside cloak taken off. The Lord rebukes those as ‘whitewashed tombs.’

겹옷과 함께 또 무엇을 길 위에 펼쳐 놓았습니까?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입니다. 성서는 종려주일 본문과 연달아 무화과 나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이 두 말씀이 연결돼 있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주님께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 하십니다. 다음날 그 나무 앞을 지날 때 그 무화과 나무는 바싹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은 주님께 나뭇가지 잎사귀를 깔아 드렸지요. 하지만 주님이 진정 원하셨던 것은 가지가 아니라 열매 입니다. 언제까지 열매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정결한 척, 열매 맺는 척 하시며 사시렵니까? 언제까지 ‘나 하나쯤이야’ 이런 생각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피해 가시렵니까?

What else did they lay on the road in addition to their cloaks? Tree branches full of leaves. The Bible records stories about a fig tree in series to today’s Palm Sunday Scripture readings. As I was preparing the sermon, I realized how these two stories are connected. Jesus Christ cursed a fig tree full of leaves but no fruit. Then the next day, as they passed by, they noticed that the tree had withered. The people laid branches on the road for Him, but what He really wanted

was not the tree branches but its fruits. How much longer will you live a fruitless life? How much longer are you going to pretend to be clean and bearing fruit? How much longer are you going to turn away from Jesus' calling by thinking, 'I do not matter much.'?

스페인의 한 동네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입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임금님이 작고 형편없는 동네를 방문하신답니다. 물론 온 동네가 난리 났지요. 마을 사람들은 김치국부터 마셔 댁니다. '임금님이 드디어 우리를 알아보셨어, 임금님만 다녀가시면 이제 우리 동네도 뜨기 시작 할꺼야.'

This is folklore from a village in Spain. It was known that their king would visit the small, shabby village. Of course, all the villagers were excited about the news. They predicted a rosy future for their village saying, "The king must finally have recognized us. After his visit, our village will get better."

축제 분위기 속에 누군가 현실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임금님께 뭘 드리지? 모두 지지리도 못살아서 아무 것도 드릴게 없는데...' 한 사람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집집마다 아끼는 술을 가져오자, 큰 항아리에 각자 한 잔씩 부어서 만든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가장 귀한 약주를 임금님께 드리자.'

In the midst of the festivity, a person asked a practical question. "What are we offering to the king? We are so poor and have nothing to offer to him..." One villager came up with a clever idea suggesting that every household bring a glass of special wine into a large jar, and they can offer it to the king.

드디어 임금님이 산골마을에 오셨지요. 마을대표가 항아리에서 한 잔 떠서 임금님께 드립니다. '세상에 하나 밖에 없는, 저희 동네사람들 모두가 정성을 담아 준비한 술입니다.' 잔뜩 기대하는 마음으로 술잔에 입을 댄 임금의 얼굴이 찌그러지기 시작합니다. '뭐야, 심심한 게 맹물 맛이잖아.' 당황한 신하들이 술독을 쏟아 붓습니다. 아니 이게 왜 일입니까? 약주는 온데간데 없고 맑은 맹물만 흘러 나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 이런 마음으로 가짜 술, 맹물 약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임금님이 오신다고 들떠서, 어떤 귀한 선물을 드릴까 고민했지만, 막상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드리는데 아주 인색 했던 거지요.

At last the king visited the village. The village leaders offered a glass of wine to the king, saying "This wine is one of its kind in the world. All villagers prepared it for you with sincere heart." With anticipation, the king sipped the wine, but then frowned. "What is this? It is only plain water!" Embarrassed servants poured the jar and to their dismay, found out that only plain water was in it. All the villagers assumed that "it won't make a difference if only I bring water instead of wine." They were excited about the king's visit and concerned about what gift they would offer to the king, but they were so stingy about giving up their precious wine.

왜 군중심리가 무섭습니까? 착하다 착한 사람도 익명의 군중이 되면 전혀 상상 할 수 없는 일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이런 군중심리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나 하나쯤이야' 라는 안일한 생각입니다. '이렇게 교우들이 많은데, 나 하나 빠진다고 무슨 큰 일이 날까? 힘든데, 바쁜데, 지쳤는데 좀 쉬었다 다른 사람이 힘들어하면, 그 때 가서 하지.'

Why is the mob psychology scary? It is because even a good person may commit a ruthless and unimaginable atrocity when he or she becomes anonymous, buried among the mob. But there is something scarier than this. It is a mind of complacency thinking that “I do not make a difference. I’m only one person.” Thoughts like, “There are so many other church members. It is no big deal if I don’t participate. I am tired and busy and should rest for now. I could pick up the work later when others are having difficulties.”

큰 바다를 건너는 철새들은 V자를 그리며 아주 먼 거리를 날아갑니다. 앞에 있는 새가 바로 뒤에 있는 새의 바람막이가 됩니다. 앞에 선 새가 지치면, 바로 뒤에 있는 새가 앞으로 나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앞에 선 새가 힘들까봐 ‘끼룩끼룩’ 걱려의 노래를 부릅니다.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하며, 이탈하는 새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나 혼자 힘으론 결코 큰 바다를 건널 수 없기 때문입니다.

Migrating birds crossing the ocean fly a long distance in a V formation. A bird flying in the front reduces wind resistance for the birds following it. Once the bird becomes tired, another bird in the back comes forward and takes the position. That’s not all. The birds flying behind make sounds as if singing a song to encourage the one flying in the front. No bird breaks out of the formation thinking, “I’m only one bird. It wouldn’t make much difference.” It is because one bird alone cannot cross the ocean.

새들의 날개짓에서 목회의 지혜를 배웁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하며, 서로 이끌고 격려하는 것, 멋진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하는 생각이 비집고 들어올 구멍이 없습니다. ‘나 하나쯤이야’는 결코 나 하나에서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줍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지요. 아주 조그만 누룩 ‘나 하나쯤이야’가 순식간에 전체 빵 덩어리에 번집니다. 결국 공동체 전체가 변질돼서 쓰레기통에 처박히게 됩니다.

I realize pastoral wisdom from the migrating birds. The image of leading and following with encouraging one another portrays a beautiful montage of a faith community. There’s no place for such attitude of “I don’t matter”. That attitude is so contagious that it never disappears by itself. It affects the whole community. Jesus Christ once warned “Be on your guard against the yeast of the Pharisees and Sadducees” (Matthew 16:6). It is because small yeast of “I do not matter” instantly spreads to the whole batch. In the end, the whole community becomes polluted and trashed.

처음 질문으로 되돌아 갑니다.

‘왜 주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까?’

뜻도 모르는 입술만의 호산나 찬양을 원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속마음은 숨겨두고, 벗어드린 겉옷을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열매없는 가지를 원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오늘 주님이 오시는 길 위에 우리의 마음과 열매를 내어 드리십시다.

Let me go back to the first question.

“Why did the Lord enter Jerusalem riding on a colt?”

He didn't want to hear the meaningless praises of 'Hosanna!' Neither did He want to walk on the cloaks of those hiding their inner hearts. Nor did He want fruitless branches. Today, let's lay down our hearts and fruits on the path He is coming.

호산나! 주님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삶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며, 때때로 자신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삶이 우리를 속이고, 상황과 조건이 우리를 궁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이 바로 '새끼 나귀'가 되어야 할 시간입니다. 주님께만 우리 모든 것을 드립시다.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만 길들여지길 소원합니다. 주님께만 우리 목 끈을 단단히 맵시다. 언제든지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만 하시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이런 귀한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Hosanna! Jesus Christ came to save us with the love of the cross. In our life's journey, we may fall or trip, or sometimes become resentful about ourselves. Even our lives may deceive us and circumstances and conditions we are in may push us to the corner. Dear beloved, it is in those moments that we should become a colt. Let's offer Him everything we have. Let's focus onto Jesus Christ, turning ourselves away from the world. Let's allow ourselves to be tamed only by our Lord. Let's allow only Jesus Christ to put a leash on us. When the Lord calls us, it is my strong desire that you and I would respond, "Lord, here I am. Although I am not worthy, I desire to be your joy. Please use me."

오늘 종려주일에 먼저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성전을 대청소 하십시오. 잎사귀만 무성했던 우리 삶이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기를 바랍니다. 주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n this Palm Sunday, let us first completely clean the holy temple in our hearts. May our lives which were once only full of leaves now bear abundant spiritual fruit. In the name of Lord Jesus Christ, may you have a victorious and blessed week in the Lord.